



# 【국 어】

1.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표준어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 ② 우리말의 자음 체계에서 ‘비음’ 과 ‘유음’ 의 분류는 조음(調音) 위치에 따른 것이다.
- ③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④ 우리말 품사 중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데 대답할 때 쓰는 ‘예, 아니요’ 가 그 예이다.

정답 ②

<정답해설> ‘비음’ 과 ‘유음’ 의 분류는 조음(調音) 방법에 따른 것이다.

<오답해설>

- ① 현대 국어의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를 변별이 가능하다.  
틀말[말:], 馬말[말]
- ③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종속적 연결어미)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가정)
- ④ 우리말 품사 중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다. 활용하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만이 활용할 수 있다.

## <1번 유형 - 총평 및 대책>

음운론과 형태론, 그리고 통사론에 대하여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출제되었다. 음운론에서는 ‘음운의 개념과 자음의 분류체계’ 가, 형태론에서는 ‘품사분류체계’ (불변어와 가변어)가, 그리고 통사론에서는 ‘문장의 종류’ 가 나왔다. 역시 문법에서 가장 우선적인 학습과제는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이다. 여기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교집합처럼 묶여있다.

2.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말의 단어 형성 유형을 우선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고, 다시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합성어**의 예로는 ( )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다.

- ① 흉내(명사) ② 저녁내(부사) ③ 끝내(부사) ④ 막내(명사)

정답 ①

<정답해설>

단어형성 : 흉(어근)+내(어근) ->합성어  
표준발음 : [흉내(끝소리규칙) ->흉내(비음화)]

<오답해설>

단어형성 : 저녁(어근) +내(접사) -> 파생어  
표준발음 : [저녁내(비음화)]

단어형성: 끝(어근)+ 내(접사)-> 파생어  
표준발음: [끝내(끝소리규칙) -> 끈내(비음화)]

단어형성: 막내(어근) -> 단일어  
표준발음: [막내(끝소리규칙)]

## <2번 유형 - 총평 및 대책>

단어형성법에서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능력과 음운의 변동현상에서 ‘끝소리규칙’ 과 ‘비음화’ 에 대하여 묻고 있다. 명확한 개념이해와 관련 기출문제풀이를 통하여 대비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것이다.

3. 다음 단어의 로마자 표기나 외래어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수락산 => Suraksan ② 오죽헌 => Ojukheon
- ③ ambulance => 앰블란스 ④ 毛澤東 => 마오쩌둥

정답 ③

<정답해설> ambulance => 앰블런스

## <3번 유형 - 총평 및 대책>

로마자표기법과 음운론과 표준발음법은 **하나**이다. 음운론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표준발음법과 로마자 표기는 **예외적인 부분과 관련 어휘만** 따로 정리하여 공부하면 된다. 예를 들면, 오죽헌의 표준발음은 [오주켄(축약)]이나 로마자 표기에서는 축약 없이 ‘오죽헌’ 이라고 적는 이유 등을 정리해둔다.

그리고 기출어휘에서 대부분 출제되는 경향이 짙으므로 기출에 나오는 어휘정리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다음 문장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수정한 것은?

희노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 ① 희노애락을V함께V하며V가족같이V지내던V친구가V한번V놀러오라고V연락을V했다.
- ② 희로애락을V함께V하며V가족V같이V지내던V친구가V한V번V놀러오라고V연락을V했다.
- ③ 희노애락을V함께하며V가족V같이V지내던V친구가V한V번V놀러V오라고V연락을V했다.
- ④ 희로애락을V함께하며V가족같이V지내던V친구가V한번V놀러V오라고V연락을V했다.

정답 ④

<정답해설>

희로애락을V함께하며(합성어)V가족같이(조사)V지내던V친구가V한번(부사: 기회가 있는 어떤 때)V놀러V오라고V연락을V했다.

## <4번 유형 - 총평 및 대책>

전형적인 띄어쓰기 문제이다. 띄어쓰기 문제는 비단 띄어쓰기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띄어쓰기 문제는 ‘의존명사’ 와 ‘보조사’ , 그리고 ‘어미’ 를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특히 ‘만큼, 대로, 뿐, 데, 지, 바’ 등이 때로는 ‘의존명사’ 로 때로는 ‘보조사’ 나 ‘어미’ 로 탈바꿈하여 우리를 유혹한다.

또, 띄어쓰기에 자주 출제되는 ‘합성어답지 않은 합성어’ (함께 하다와 같은 단어)들을 모아서 꼭 정리해두면 더욱 좋다.

5. 다음 중 밑줄 친 차자 표기의 방식이 **다른** 하나는?

善化公主主隱	善化公主니른
他①密②只嫁良置古	늬 그스지 얼어 두고
薯童房乙	맛둥바을
夜③矣④夕乙抱⑤遣去如	바릭 몰 안고 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정답해설>

- ① ㉠密(그윽할, 밀) -> 훈차(뜻을 빌림)
- ② ㉡只(다만, 지) -> 음차(어미)
- ③ ㉢矣(어조사, 의) -> 음차(조사)
- ④ ㉣遣(보낼, 고) -> 음차(어미)

<5번 유형 - 총평 및 대책>

향찰의 차자표기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한자어와 관련해서 출제되어 다소 어렵게 느껴지나 다른 각도로 보면 쉬운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향찰의 개념과 표기방식만 간단히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무조건 한자어의 뜻풀이로 몰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우리는 향찰의 모든 한자를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출제자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자의 방법을 권한다.

\* 향찰의 표기방식

실질형태소 - 훈차(뜻을 빌림)  
형식형태소 - 음차(소리를 빌림)

\* 적용방법

바릭(밤에):夜③矣(조사니까 음차)    몰:夕乙    안고(어미):抱⑤遣(어미니까 음차)    가다:去如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불·휘 기·폰 ㉠남·근    브락·매 아·니    :    필·씨
㉡꽃    :    도·코 여·름    ·하·느·니
:    식·미 기·폰    ·므·른 ㉢·ㅁ·ㅁ·래 아·니 그·출·씨
㉣:    내·히 이·러 바·락·래    ·가·느·니

- ① ㉠에는 주격 조사와 만나 형태가 변한 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 ② ㉡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당시의 표기법에는 어긋난다.
- ③ ㉢에는 현대 국어의 명사 ‘가물’의 옛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 ④ ㉣에서 조사가 생략되었다면 ‘내’의 형태로 쓰였을 것이다.

**정답 ①**

<정답해설>

㉠ ‘나무는’으로 해석된다. 이때, ‘는’은 보조사이다. 단독명사는 ‘나모’이므로 형태가 변한 것은 맞다.

<오답해설>

② ㉡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당시의 표기법에는 어긋난다. 그렇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당시의 표기법은 중성부용초성이 아닌 8중성법이므로 ‘스’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없다.

<6번 7번 유형 - 총평 및 대책>

고전문법은 어렵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분야이다.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훈민정음 제자원리’ 간단한 ‘음절운용법’의 원리 등을 익혀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문법내용을 바탕으로 기초를 익혀야 한다. 그 후 ‘소학연해’ ‘용비어천가’ ‘독립신문 창간사’ 등을 공부한다. 이 작품들은 비문학과 문학 지문, 어휘문 제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만큼 반드시 배경지식으로 익혀 두어야 한다. 그밖에 지엽적인 부분은 기출문제로 대신하면 된다.

7. 다음 중 한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한글은 창제 당시 28개의 기본자 중 17개가 자음자였으며 모음자 중 4개는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 ② 한글은 소리 문자이지만 일본의 ‘가나’와 다른 음소 문자로서 개별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모두 일대일로 대응된다.
- ③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글 자모 명칭은 같지만 사전에 올릴 때에 사용하는 한글 자모 순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 ④ ‘ㄱ<ㅋ<ㆁ’과 같이 소리의 세기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 과정에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정답 ①**

<정답풀이>

①이중모음을 나타내는 모음4자는 (재출자) ㅟ, ㅞ, ㅟ, ㅠ이다.

<오답풀이>

② ‘한글은 소리 문자이지만 일본의 ‘가나’와 다른 음소 문자로서 개별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모두 일대일로 대응된다.

: 음소는 음운이다. 즉 자음과 모음이다. 개별글자가 자음과 일대일로 대응되는가? 그렇지 않다. 자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가 없다.

③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글 자모 명칭은 같지만 (다르다) 사전에 올릴 때에 사용하는 한글 자모 순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맞다)

남한: 기억, 니은, 디글

북한: 기억, 니은, 디을

④ ‘ㄱ<ㅋ<ㆁ’과 같이 소리의 세기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 과정에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ㆁ’은 합용의 원리(병서)가 사용되었다.

<7번 유형 - 총평 및 대책> \* 6번과 동일함.

8.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 ① 이런 날씨에 비를 맞추니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나지.
- ② 너라면 아마도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 ③ 우리 선수는 마지막 화살까지도 10점 과녁에 맞췄다.
- ④ 그는 그녀와의 약속 시간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었다.

**정답 ④**

<정답해설>

그는 그녀와의 약속 시간을 제대로 맞춘(어떤 정도나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 적이 없었다.

<오답해설>

비를 맞히다(0) 정답을 맞히다(0) 과녁에 화살을 맞히다(0)

<8번 유형 - 총평 및 대책>

한글맞춤법에서 가장 꾸준히 빈번히 출제되고 있는 부분은 57항 구분하여 적기 부분이다. 꼼꼼하게 정리가 필요하면 기출어휘 정리 역시 필수 과제이다.

9.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 ② 선생님, 제 말씀부터 좀 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③ 정성이 이 정도라면 여간한 성의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 ④ 선생님, 선생님께 훈장이 추서됐으니 수여식에 참석하시래요.

정답 ②

<정답해설>

선생님, 제 말씀(때로는 높임말과 때로는 낮춤말로 사용가능)부터 좀 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답해설>

①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소개하다' 에 이미 사동에 의미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동표현은 피한다.)

③ 정성이 이 정도라면 여간한 성의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 여간한 성의가 아니네요.

\* 여간하다 : ('아니다, 않다' 등의 부정어 앞에 사용되어 '이만저만하거나 어지간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④ 선생님, 선생님께 훈장이 추서(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을 수여하는 일)됐으니 수여식에 참석하시래요.

10. 다음 문장에서 '-었-/-았-/-였-'의 문법적 기능이 밑줄 친 예와 가장 유사한 것은?

그 두 사람은 쌍둥이인 것처럼 서로 정말 닮았다.

- ① 모두가 기다리던 그가 밤늦게 공항에 도착하였다.
- ② 윤희는 예쁜 파란색 모자를 사고서는 방금 떠났다.
- ③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정말로 잘생겼다.
- ④ 결국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정답 : ③

<정답해설> 그 두 사람은 쌍둥이인 것처럼 서로 정말 닮았다.

--> 과거시제( 닮은 상태가 과거에 완료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됨)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정말로 잘생겼다.

--> 과거시제( 잘생긴 상태가 과거에 완료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됨)

<오답풀이>

① 모두가 기다리던 그가 밤늦게 공항에 도착하였다.

-->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며 현재까지 지속되지는 않음)

② 윤희는 예쁜 파란색 모자를 사고서는 방금 떠났다.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며 현재까지 지속되지는 않음)

④ 결국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미래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일처럼 말할 때 사용)

<10번 유형 - 총평 및 대책>

통사론에서 시간표현 관련하여 출제되었다. 시간표현 이외에 양태적의미(사람의 심리표현)도 함께 물어 보았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본개념을 명확히 공부했다면 충분히 적용가능한 문제였다.

11.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적절한 것은?

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1. 모든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 |      |     |    |
|------|-----|----|
| ㉠    | ㉡   | ㉢  |
| ① 發揮 | 排他的 | 一刻 |
| ② 撥揮 | 排他的 | 一覺 |
| ③ 發揮 | 俳他的 | 一刻 |
| ④ 撥揮 | 俳他的 | 一覺 |

정답 ①

<정답해설>

發(필, 발)揮(휘두름, 휘)

排(밀칠, 배)他(다를, 타)的(과녀, 적)  
—(한, 일) 刻 (새길, 각)

12. 다음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관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살이 벌여 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훌훌 뉘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 병이나 받고 고깃 마리나 사면 죽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찹찹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굴병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그만 걷을까?”

- ① ㉠ :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 ② ㉡ : 곤충의 한 종류로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 : 얼굴에 우묵한 마맛자국이 생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 ④ ㉣ : 여러 가지 농기구를 파는 작은 가게를 일컫는다.

정답 : ④

<정답해설>

㉣드팀전 : 여러 가지 옷감을 파는 작은 가게를 일컫는다.

13.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둥 치면 들보가 운다 :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억울하게 배상을 하게 된다.
- ② 게도 구멍이 크면 죽는다 : 분수에 지나치면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
- ③ 토끼 뒷에 여우 걸린다 :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의외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 ④ 소경이 개천 나무란다 : 자기의 과실은 생각지 않고 상대만 원망한다.

정답①

<정답해설>

기둥 치면 들보가 운다 : 직접 맞대고 탓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넌 지시 말을 하여도 알아들을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꽃 디고 새 님 나니 녹음(綠陰)이 질렸는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여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궂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원앙금(鴛鴦衾)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카니와 제도(制度)도 그줄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히 빅 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홀시고, 천리(千里) 만리(萬里) 길홀 뉘라셔 츠자갈고, 니거든 여려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나)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빅설(白雪)이 흔 빗친 제, 사름은카니와 늘새도 궂쳐 있다. 쇼상 남반(瀟湘南岸)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 고쳐(玉樓高處)야 더욱 닐러 므습호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취힐 히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 츠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 슈둑(日暮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티 던공후(銅箜篌) 노하 두고, 쑤의 나 님을 보려 틱 밧고 비겨시니, 앙금(鴛鴦)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다)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넬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념(水晶簾) 거든말이, 동산(東山)의 들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취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나그티 링그쇼셔.

(라)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궂득 닝담(冷淡) 혼디 암향(暗香)은 므스일고, 황혼(黃昏)의 들이 조차 벼마 틱 빗취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14. 이 글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은?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라) → (가) → (다) → (나)
-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 :③

<정답해설>

(라)봄 → (가)여름 → (다)가을 → (나)겨울

<14번 유형 총평 및 대책>

분명히 낯선 작품(한자어가 대부분)에서 ‘시간의 흐름’을 물었다면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 작품은 고전 가사의 3대 작품으로 일컫는 ‘사미인곡’이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배경지식으로 공부했어야 하는 작품이다. 고전시가학습의 기본은 시대별로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고 주요작품을 미리 학습하는 것이다. 특히, 주요작품의 빈출지문은 시험장에서 굳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핵심내용을 떠올릴 만큼.

15. 이 작품의 주제를 연군지정(戀君之情)이라 할 때, 각 단락에 나타난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자신의 정성을 임금에게 전하고자 함.
- ② (나) - 임금의 건강을 염려하고 임금을 그리워 함.
- ③ (다) - 자신과 임금이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함.
- ④ (라) - 임금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알리고자 함.

정답 :③

<정답해설>

(다) - 동산(東山)의 들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연군지정, 이별의 슬픔)

청광(淸光)을 쥐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취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나그티 링그쇼셔 - 밝은 빛을 봉황루 (임금계신 곳)에 부치고 싶다. 그것을 누각 위에 걸어 두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취 깊은 산골짜기도 대낮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군지정과 선정에 대한 소망)

<15번 총평 및 해설> - 14번과 동일함.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끼오리도 헌신작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쪼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형겅 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시든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16.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닥불을 함께 쪼며 개인적 삶을 긍정하고 있다.
- ② 감각적이고 토속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③ 1연과 2연은 동일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3연에서 불행한 가족사와 민족사를 접목시키고 있다.

정답 ①

<정답해설>

\*작품 간단 해설 :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작품이다. 시적화자는 모닥불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정서, 화합의 정신(1연과 2연)을 노래하고 있으며 3연에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① 모닥불을 함께 쪼며 개인적 삶을 긍정(x)하고 있다.

<16번 유형 총평 및 대책>

현대시를 분석할 때는 내재적인 접근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신의 배경지식(경험과 지식의 총체)와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습관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맥락을 통하여 시 전체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다만, 주요작가의 빈출작품은 고전시가처럼 반드시 미리 학습해 두어야만 한다.

17. 시어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족신의 밑창
- ② ㉡: 아버지의 사촌 형제
- ③ ㉢: 새 사돈
- ④ ㉣: 팔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

정답 : ②

정답해설 : ㉠재당 재실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일을 주관하던 학덕이 높은 집안의 어른 또는 再從(6촌)

<17번 유형 총평 및 대책>

다른 작품에 비해서 어휘가 비교적 어렵게 출제되었다. 최근에 기출되었던 작품이었기에 이렇게 어휘를 물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최근 기출문제 중에 어휘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 있다면 미리 어휘를 정리하고 해석해 두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기를,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하였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하니, 북곽 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경’을 읊었다.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 어느 것을 모형 삼아 만들었나?”  
 그리고 나서  
 “이는 흥(興)이로다.”  
 하였다.  
 다섯 아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예기(禮記)’에 과부의 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 북곽 선생님은 현자가 아니신가.”  
 “정나라 도읍의 성문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가 굴을 파고 산다더라.”  
 “여우가 천년을 목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 이는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 ……(중략)……

(나)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에워싸고 공격하니,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뺨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 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나. 대인(大人)은 그 가족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 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나.”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라)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誨)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합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18. 이 글과 주제 면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붉가버슨 兒孩(아해) | 들리 거미줄 테를 들고 기川(천)으로 往來(왕래)하며,  
 붉가숭아 붉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부로나니 붉가숭이로다.  
 아마도 世上(세상)일이 다 이러하가 호노라.  
 ② 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화 그 무엇이라 웨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후행)

- 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아스스속 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하렴은.  
 ③ 靑天(청천)에 뻗는 기러기 혼 雙(쌍) 漢陽城臺(한양성대)에 잠간 들러 쉬여 갈다.  
 이리로서 저리로 갈 제 내 消息(소식) 들어다가 님의게 傳(전) 호고 저리로서 이리로 올 제 님의 消息(소식) 드러 내손디 브디 들러 傳(전)호여 주렴.  
 우리도 님 보라 밧비 가는 길히니 傳(전)홀 동 말 동 호여라.  
 ④ 두터비 꼭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것년 山(산) 바라보니 白松鵲(백송골)이 썬 잇거늘 가슴이 금죽 호여 풀덕 썬여 내똥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늘랜 널식망정 에혈질 번호과라.

정답④

<정답해설>  
 ④인 이유 : 박지원의 ‘호질’의 주제는 양반의 허위의식과 유학자의 이중성 비판과 풍자이다. 이 작품에서는 강자(중앙관리, 왕족)에게는 약하고 약자(백성)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두꺼비(중간관리)를 비판하고 희화화의 방법을 통하여 풍자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 : 서로 속고 속이는 세태 비판
- ② ㉡ : 계장수의 현학적 태도 비판
- ③ ㉢ : 시적화자와 의인화된 기러기의 대화형식을 통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18번 유형, 총평 및 대책>  
 고전문학의 양대 산맥이 있다면 고전시가에는 ‘정철’ ‘윤선도’이며 고전 소설에는 ‘연암 박지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분들 작품만큼은 반드시 배경지식을 키워야 합니다.

19. (가)~(라)에 나타난 상황을 한자 성어로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表裏不同 - ② (나) 命在頃刻  
 ③ (다) - 巧言令色 ④ (라) - 櫛風沐雨

정답④

<정답해설>  
 (라) 櫛風沐雨 - 櫛(빗, 쓸) 風(바람, 풍) 沐(머리, 감을 목) 雨(비, 우)  
 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에 몸을 씻는다는 뜻으로, 긴 세월(歲月)을 이리저리 떠돌며 갖은 고생(苦生)을 다함을 이르는 말  
 → 본문과 관련 없음.

<오답해설>  
 ① (가) 表裏不同 -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름. (表 : 겉 표 裏 : 속 리 不 : 아닐 불 同) : 같을 동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르거나 말과 행동이 다름을 가리킨다 → 북곽선생의 본질을 이룸.

② (나) 命在頃刻 : [명재경각] 목숨이 경각(頃刻)에 달렸다는 뜻으로, 숨이 곧 끊어질 지경(地境)에 이룸, 거의 죽게 됨(북곽선생의 현재 처지)

③ (다) - 巧言令色 :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알랑거리는 얼굴. (巧 : 공교로울 교 言 : 말씀 언 令 : 하여금 영 色 : 빛 색) 아름다운 말과 웃는 얼굴. 즉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해 꾸미는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 → 범에 대한 북곽 선생의 태도

<19번 유형, 총평 및 대책>  
 국어의 완성은 문법이 아니라 어휘에 있다. 그 어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출제되는 한자성어이다. 자주 출제되는 한자성어는 물론이거니와 중요 한자성어를 익히는 일은 국어학습의 필수요소이다.

20.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 ① ㉠ :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 ② ㉡ :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보여 준다.
- ③ ㉢ : 삶의 터전을 빼앗기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 ④ ㉣ : 난쟁이 가족의 어려운 삶의 형편을 보여 준다.

**정답 ③**

<정답해설> ③ ㉢ : 글 전체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은 이미 삶의 터전을 빼앗기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하는 말이다.

<20번 유형, 총평 및 대책>

현대소설문제는 거의 쉽게 출제되고 있는 편이다. 지금까지 출제 유형은 주로 내용파악이나 서술상 특징을 묻는 것이었다.

누구나 차분하게 지문을 이해한다면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시점과 구성상 특징’에 관련된 명확한 배경지식의 습득은 꼭 필요하다.